

乳加工産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張 聲 鍾

韓國乳加工協會 常務理事

I. 현 황

우유는 보존성이 극히 짧아 젖소로부터 생산된 이후 적어도 2~3일 이내에 가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특성이 있고 그렇다고 낙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도 제약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히 낙농산업은 유가공산업과 더불어 발전해 오게 되었다.

따라서 유가공산업을 거론하다 보면 낙농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자에게 주어진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다 보면 자연히 낙농산업쪽도 거론하게 됨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1. 우리나라의 낙농 및 유가공 역사

우리나라의 유제품 또는 유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이성우 교수께서 역사적으로 자세히 고찰하시므로 여기서는 유유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유용종(乳用種) 젖소가 도입된 이후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유용종인 홀스타인 젖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 농상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불란서 사람 쇼트씨가 홀스타인종 젖소 20두를 수입하여 현재의 신촌역 부근에서 목장을 시작한 것이 최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후 젖소 두수는 점차 늘어나 1935년도에는 2천여두에 이르게 되었고 1937년 7월에 처음으로 유처리장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신인 경성우유동업조합에 의해서 설립되어 우유가 상업적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이 때 생산된 우유는 주로 일본인이나 특수층 외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런대로 동업조합을 구심점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8.15해방과 6.25동란으로 낙농업의 기반은 여지없이 붕괴되어 1954년 남한의 젖소는 289두에 불과하여 정부의 지원책없이 스스로 일어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도부터 시작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속에 축산진흥계획을 포함시키고 62년도에 천여두의 젖소를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것이 낙농 및 유가공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젖소두수는 62년에 1956두였던 것이 70년에는 2만여두, 88년에는 48만두로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62년에 1개소 밖에 없었던 유처리공장이 70년도에는 38개소, 88년

표 1. 낙농 및 유가공 현황

년도	젖소두수	집유(남유)량	공 장 수	시설능력(년)	1인당년간소비량
1962	1,956 두	1,520 톤	1 개소	7,920 톤	0.1kg
1970	20,510	47,706	38	72,580	1.6
1975	71,130	160,338	47	292,078	4.6
1980	172,883	452,327	51	802,391	10.8
1985	390,135	1,005,811	47	1,284,548	23.8
1986	437,333	1,154,460	48	1,399,192	28.2
1987	463,330	1,413,126	47	1,734,919	34.3
1988	480,239	1,631,896	49	1,961,875	39.4

(주) 1. 젖소두수는 암소두수임

에는 49개소가 되었고 업체수로는 36개 업체에 연간 시설능력은 1962천톤에 이르고 있다(표 1 참조).

2. 유제품의 생산연혁

1937년 7월 경성우유동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생산된 제품은 우유(백색우유) 밖에 없었으며 62년 12월에 서울우유에서 정부보조와 용자에 힘입어 중량교에 연유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우유는 저온살균방식(65℃에서 30분간)에 의하여 생산되었고 63년도에 서울우유에서 제 2 공장을 신축하면서 새로이 고온순간살균법(75℃에서 15초)을 채택한 이후 대부분의 유업체가 70년대 초기에 이 방식을 채택하였고 72년부터 73년 사이에 많은 유업체가 UHT 살균방식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88년말 현재 저온살균방식을 사용하는 공장은 2개소, 고온살균방식을 사용하는 공장은 1개소이고 이외에는 모두 초고온순간살균방식(UHT)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의 신제품 개발은 선발 메이커인 서울우유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유제품 생산역사를 요약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의 낙농 및 유가공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진흥정책과 유제품의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낙농 및 유가공 발전에 대응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열거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유가공 현황을 그대로 열거하는 결과가 되기 쉬우므로 여기서는 주로 법적인 문제와 중요정책에 관한 것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우선 정부에서는 1961년 1월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제정 공포하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가공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유제품을 비롯한 축산물 관리에 기초를 마련하였고 낙농진흥계획을 경제개발계획과 발맞추어 수립하고 매년 젖소를 도입하므로써 낙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2년 12월부터 연유가 생산되고 65년부터 조제분유가 생산되었으나 수입유제품의 범람으로

표 2. 우리나라의 유제품 생산역사

최초생산년월	업 체 명	생 산 제 품
1937. 7	서 울 우 유	백 색 시 유
1962. 12	서 울 우 유	가 당 연 유
1964. 7	서 울 우 유	가 염 버 티
1965. 5	서 울 우 유	조 제 분 유
1967. 2	남 양 유 업	두 당 연 유
1968. 2	서 울 우 유	가 공 유(초코우유)
1969. 6	서 울 우 유	유 제 품 아 이 스 크 림
1969. 12	서 울 우 유	진 지 분 유
1971. 6	서 울 우 유	탈 지 분 유
1971. 8	한 국 야 쿠 르 트	액 상 요 쿠 르 트
1972. 3	남 양 유 업	멸 균 우 유
1972. 6	서 울 우 유	자 연 치 즈
1974. 5	삼 양 식 품	가 공 치 즈
1977. 6	서 울 우 유	푸 닝
1981. 1	삼 양 식 품	호 상 요 쿠 르 트
1984. 7	서 울 우 유	유 당 분 해 우 유
1987. 1	해 태 유 업	저 시 방 우 유
1987. 4	해 태 유 업	완전포장슬라이스치즈

국내 유제품의 판매가 큰 제약을 받게되자 연유는 63년부터, 분유는 65년부터 수입제한품목으로 수입정책을 변경시켜 수입유제품의 범람을 규제하였다.

한편 6.25동란 이후 미공법 PL 480-II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된 분유는 원래 목적인 아동급식용과 사회복지 사업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시중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모처럼의 국내 산업보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70년 10월에 미잉여 농산물 중 아동급식용 및 사회복지 사업용을 제외한 분유의 도입을 전면 중지시켰고 72년 3월에 구호분유 도입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및 사회복지 사업용 분유도 국산으로 대체 공급케 되었다.

또한 낙농진흥의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67년 1월에 낙농진흥법이 공포되었고 69년에는 초지법이 제정되어 정부보조하에 전국에 많은 초지가 조성되고 낙농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외에 73년부터는 원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원유대를 유지방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대 차등지급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78년 5월부터는 원유의 항생물질 잔류여부를 측정하는 TTC 검사를 통하여 원유의 항생물질을 규제하게 되었다.

한편 70년대에 낙농 유가공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유업체들도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원유집유에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각종 부조리가 발생되어 정부에서는 76년 11월 20일 집유선 동결조치를 취하여 유업체간의 집유를 위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납유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실시하게 되었고 다소간의 원유 유동 부조리가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다가 87년 9월에 파스퇴르유업이 등장하면서 집유선 동결조치를 전면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집유를 하게됨에 따라 정부의 집유선 동결조치는 사실상 통제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61년부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되고 감독받고 있던 유제품에 대한 허가업무가 85년 7월 1일부터 보사부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으로 개정되어 원유의 집유단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취급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제품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보사부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이는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취급하여야 관리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유의 수급문제가 여전히 농림수산부에 남아있으므로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유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가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학교 우유급식

우리나라의 학교 우유급식은 미잉여 농산물 원조계획에 의해 탈지분유를 구호용으로 학교에 공급 하므로서 시작되었고 학생들 부담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실시된 것은 1970년 2학기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민학생 8만명에 실시한 것이 학교 우유급식의 시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쌀밥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갖게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식생활을 변경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학교 급식의 실시는 우유소비 저변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70년도부터 빵과 함께 실시된 학교 우유급식은 77년 9월까지 순조롭게 이어져 왔으나 77년 10월

표 3. 연도별 학교 우유급식 현황(국민학교)

(단위 : 천개)

연도	급식학교수	총우유급식량	일평균급식량	보조금예산
1970	86	4,097	59	
1971	109	5,154	29	
1972	116	10,732	60	
1973	144	8,146	45	
1974	137	5,602	31	
1975	138	9,485	53	
1976	255	7,952	44	
1977	345	11,668	65	
1979	120	18,512	103	
1980	2,307	80,993	450	3억 5천만원
1981	2,548	209,415	1,163	18억원
1982	1,605	205,003	1,139	20억원
1983	2,358	273,829	1,521	28억원
1984	2,409	312,224	1,735	22억 3천만원
1985	-	382,902	2,123	29억원
1986	2,513	452,314	2,513	35억 6천만원
1987	4,856	521,863	2,899	40억 8천만원
		(702,929)	(3,905)	
1988	8,100	554,796	3,082	52억 6천만원
		(821,860)	(4,566)	

(주) 괄호내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수치임.

에 학교 급식 식빵의 식중독사건이 터지고 학생 1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자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 이후에도 시범급식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이 계속되었으나 그 숫자는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79년 하반기부터 우유소비가 격감되자 농림수산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80년 2학기부터 축산진흥기금의 보조에 의한 전국 학교급식이 실시되었고 매년 급식량이 확대되면서 88년도에는 국민학교생 3,082천명에 우유급식을 실시한 외에 중·고등학생 1,484천명에도 학교 급식을 실시하여 전체 우유급식량은 4,566천명에 이르며 이는 연간 170천톤의 원유를 소비하여 88년 전체 소비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우유급식 현황은 표 3과 같다.

5. 우유포장의 변천

우유의 포장은 1962년 이전에는 유색 유리병을 사용하였고 62년부터 백색 유리병을 사용하였으며 당시는 반자동식 타전기로 병마개를 막았고 1홉과 2홉병의 병 입구 크기가 달랐다.

64년부터는 자동충병 타전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1홉병과 2홉병의 입구가 같게 되었고 71년 지로팩이라는 삼각 폴리메칠렌 용기(테트라팩 형태)가 보급되어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72년에는 삼각형의 멸균포장 우유(테트라팩)가 처음 생산되었다.

74년경부터 4각형 형태의 폴리메칠렌 포장과 플라스틱병이 생산되었고 77년부터는 종이 포장용기(카톤팩)가 서주산업에서 처음 생산된 이래 포장용기는 병, 폴리메칠렌쪽에서 종이 포장용기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고(표 4 참조) 용량도 소포장(180~200 ml)에서 대포장(500~1000 ml)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85년 7월부터는 소포장 우유의 용량을 1홉인 180 ml에서 200 ml로 미터법에 의한 국제규격으로 변경한 바 있다.

표 4. 시유의 포장용기별 판매비율 (단위 : %)

구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병	42.2	25.7	14.1	11.9	8.3	7.2			3.9	1.6	0.8
포 리	47.6	43.4	28.3	27.7	23.5	23.6	20.5	16.2	11.0	10.1	8.2
카 톤	3.7	21.7	49.4	53.2	61.7	61.0	74.9	79.9	79.3	82.4	85.6
테트라	6.5	9.2	8.2	7.2	6.5	8.2	4.6	3.9	5.8	5.9	5.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본 자료는 한국유가공협회의 주요업체 실적이며 전국 평균이 아님.

2. 84년과 85년의 병 시유판매 실적은 집계되지 않아 누락된 것임.

표 5. 용량별 판매비율 (단위 : %)

구 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500ml 이상	6.9	9.3	11.9	19.2	24.7	28.5	31.1	35.9
500ml 미만	93.1	90.7	88.1	80.8	75.3	71.5	68.9	64.1

II. 우유의 수급현황과 전망

1. 우유의 수급현황

우유는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원유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보관을 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수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낙농 및 유가공업 발전에 관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돌이켜 볼 때에 1962년 가당연유 생산시설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유의 소비가 둔화될 때에는 생산된 원유를 폐기하든가 자체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어 낙농발전에 제약요인이 되어 왔었고 가공시설이 생긴 이후에도 간혹 원유를 수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65년도에 조제분유를 생산하게 되면서부터는 낙농가들이 안심하고 원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유는 수요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유가공 발전 측면에서는 우유의 잉여가 더 큰 문제이므로 본 란에서는 잉여시의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먼저 70년 8월 우유에 대장균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일주일 이상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소위 대장균 파동이 일어나 소비량이 거의 50%나 감소하는 큰 위기가 닥쳐왔으나 다행히 서울지역 국민학교에 우유급식이 2학기부터 실시되어 위기를 모면하였고, 두번째는 72년 1월의 비수기를 맞이하여 유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모 유업체에서 수유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유거부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급기야 전국적인 수유파동을 불러 일으켜 원유를 하천에 버리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으며 원유폐기의 주된 원인은 가공시설의 부족으로 잉여되는 원유를 수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낙농가와 유업체와 정부가 합심하여 우유소비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72년 봄의 성수기를 맞이하여 우유의 판매량이 급신장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세번째로는 79년 하반기부터 밀어닥친 국제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의 침체로 우유소비의 격감을 가져와 80년초에는 8천여톤이나 분유가 재고로 쌓이는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때에도 정부 주도하에 학교급식재개, 재고금융방출, 정부와 유업체의 공동홍보, 젓소도입증지, 송아지 모유먹이기 운동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80년 1월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인 유당을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하여 모조분유의 생산을 억제한 결과 81년에는 재고가 전부 소진되고 오히려 부족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네번째로는 84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불경기와 84년말에서 85년초에 걸친 식품의 극독물 첨가사건은 우유의 소비증가율을 둔화시켜 84년도의 생산증가율은 20%인데 비해 소비증가율은 14.4%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85년도에는 소비확대를 위하여 소포장 우유의 용량증량, 전지분유수출(2,030톤), 송아지 대용유 생산업체에 전지분유 공급(정부보유분 904톤, 업체보유분 1,393톤), 학교급식확대, 공동홍보실시, 원유 수매자금 융자(200억원), 유제품 수입억제 등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85년 말 분유재고는 84년보다 늘어난 6300톤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원유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드디어 85년에는 백만톤을 넘어서게 되어 낙농 유가공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하지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재고 과잉의 계속은 87년도까지 이어져 낙농 유업체가 극심한 곤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우유의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도래했다는 여론이 일기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87년 7월 우유생산조절제 실시요령(소위 계획생산제도)을 공고하였으나 농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되었다.

87년 하반기와 88년도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올림픽 성수 등이 수요를 자극하고 생산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목부의 이적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낙농경영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88년 하반기부터 생산증가율이 둔화되어 오히려 원유부족으로 유업체간의 집유 쟁탈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다섯번째로는 89년 들어서의 소비침체 현상을 들 수 있겠다.

그 원인으로서 연초에 10회에 걸친 이상구씨의 건강법이 KBS TV를 통하여 방영되면서 우유 및 치즈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발언과 금년들어 "수출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10월 1일부터 원유가격을 13% 인상함에 따른 제품가격이 배달원들의 권익주장으로 20~30% 인상되므로 소비침체를 가져와 유가공 역사 이래 처음으로 89년 9월말 현재 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 1.2%를 나타내는 극심한 소비감소 현상을 초래하여 9월말 분유재고가 12천여톤에 금액으로는 480억원의 체화를 가져왔고 이상태로 간다면 89년말 재고는 15천톤, 90년말 재고는 28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6 참조).

위에 언급한 주요 요인 외에도 파스퇴르유업의 과대광고(자사우유만이 진짜라는 광고), 학교급식 보조금의 감소(57억원→26억원), 음용유 소비의 한계(1인당 일본 37.6kg, 한국 30.5kg), 수입유제품의 범람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3일 우유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송아지에 대용유 대신 분유를 급여토록하되 kg 당 4,300원하는 전지분유를 유업체에서 2,500원에 공급토록하고, 둘째 학교급식을 48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늘리고, 셋째 젓소도태를 적극 유도하며, 넷째 돼지새끼용 대용유의 원료용으로 전지분유 천톤을 정부보조하에 공급하고, 다섯째 유제품 수입을 억제하며 불법

표 6. 연도별 원유수급 현황

(단위: 천톤)

연 도	생 산 량	%	소 비 량	%	재 고	
					원 유	분유환산
80	452	115.0	412	110.1	62	
81	513	113.4	558	135.4	18	
82	590	115.0	593	106.3	15	
83	722	122.4	729	122.9	8	
84	864	119.7	834	114.4	39	
85	1,008	116.7	991	118.8	57	6.3
86	1,154	114.5	1,162	117.3	49	5.4
87	1,413	122.4	1,425	122.6	50	5.0
88	1,632	115.5	1,652	115.9	30	3.1
89	1,326	108.0	1,233	98.8	123	12.0
89	1,764	108.1	1,650	99.9	144	15.0
90	1,900	107.7	1,780	107.9	264	28.0

(주) 1. 87년도부터 컴퓨터로 집계됨에 따라 당해년도의 생산소비 증가율은 부정확함.

2. 89~90년도는 농림수산부 종합발표에 의한 추정치임.

유출 외제 유제품을 집중 단속하고, 여섯째 낙농위원회를 조속 설립하며 200억원 범위내에서 원유대 지급자금을 유업체에 융자하고, 일곱째 소비확대를 위한 공동홍보 및 생산조절 홍보를 해나가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금번 발생한 분유 체화의 근본문제가 해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2. 우유 수급전망

이상으로 우유 수급현황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 바 여기서 우리는 우유체화 현상의 주기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62년 이전에는 가공시설이 없어 전혀 수급안정을 기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그 다음은 72년의 수유과동을 들 수 있겠고 그 이후는 79년말의 석유과동에 의한 과잉시기와 84년 하반기부터 87년까지 불경기에 의한 재고 체화시기와 금년도의 소비침체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우유의 체화현상은 주기별로 살펴보면 63년이후 10년만인 72년에 수유과동이 있었고(70년도의 대장균 과동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므로 고려치 않음) 72년초 이후 8년만인 97년말에 재고체화 현상이 있었고 79년말 이후 5년만인 84년말부터 재고체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때에는 3년 가까이 체화가 지속되었다.

또한 87년 이후 약 1년반만인 금년에 또다시 체화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유체화의 주기가 짧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체화해소 대책에 있어서도 70년도의 대장균과동 때는 서울지역의 학교급식 실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72년초의 수유과동시는 우유소비 캠페인을 벌인 결과 과잉문제가 해결되었고 79년 하반기부터 석유과동에 의한 과잉시기에는 전국적 학교급식 재개, 재고금융방출, 공동홍보, 젓소도 입증지 등으로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84년 이후의 침체현상은 위의 모든 대책외에 전지분유수출, 소포장 용량조정, 송아지 대용유용으로 전지분유 공급 등 수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체화문제 해결에 거의 3개년이 걸렸으며 금년도의 소비침체에 따른 대책도 정부발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수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세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유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군급식, 학교급식 등의 단체급식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반면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과잉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과잉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해소가 어렵다는 점과 소비증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대로 간다면 만성적인 우유체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생산과잉 국면이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III. 발전방향

1. 우유 수급조절기구의 설립

낙농 유가공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저장성이 낮은 우유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유의 수급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정부가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급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수급을 다루는 기관이 다원화되어 수입문제는 보사부, 집유문제는 유가공업체 등이 담당하므로서 일관성이 없고 강력한 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었다.

이미 이 문제는 정부의 종합발표에서도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위원회의 설립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동 기구에서는 집유일원화에 의한 집유 검사업무, 원유배분, 원유가격결정, 유제품의 수출입창구 일원화,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업무, 낙농지도, 계획생산제도, 안정기금의 운영 등 원유수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므로서 명실상부하게 이 기구를 통하여 우유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자조금제도에 의한 공동홍보

1984년 이후로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매년 3~5억원(89년에는 10억원)의 자금을 유업체로부터 거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동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예산 규모가 너무 빈약하므로 농민들도 소비확대에 동참하는 자조금제도를 병행 실시하므로서 공동홍보가 확대 발전되어야만 우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유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유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품이 97년도 이전에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되지 않으면 안될 현실하에서 낙농업계는 너무나 취약점이 많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요청되므로 이러한 수입자유화에 대처해 나가고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사양기술의 향상, 두당산유능력개량, 사육규모의 확대, 자급사료 생산에 역점을 두는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원유가격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유가공업계도 이에 따른 유제품 가격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길만이 수입자유화라는 현실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4. 유통구조 개선

우리나라의 음용유 유통구조와 가격체계는 모순이 많은 바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백색 우유의 경우 가정 배달시 200ml 한 개에 200원 내외에 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을 소매상에서 구입시는 250원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유통구조상의 모순이므로 앞으로는 슈퍼마켓에 대량공급으로 유통마진을 축소시키고 유통경로도 축소시켜 소비자에게 보다 싼 가격에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5. 신제품 개발

우리나라의 우유소비 패턴은 너무나 음용유(우유 및 가공유)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88년도의 경우 77.4%가 음용유로 처리되어 계절적인 수급불균형과 재고체화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유제품 즉 요구르트, 치즈 등의 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고유음식인 김치와 된장 등과 어울릴 수 있는 유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의 가정에서 시식해 본 바에 의하면 김치와 슬라이스치즈, 된장찌개와 자연치즈는 맛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것을 볼 때 서양의 발효식품인 치즈와 한국의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의 만남을 통한 맛과 영양가치를 연구한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6. 기 타

이외에도 학교급식의 의무화, 우유의 수급을 관장하는 정부부서와 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의 일원화 등과 정부의 종합대책 및 위에 열거한 방안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비로서 우리나라의 유가공업을 냉엄한 국제경쟁사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주로 수급안정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비록 제시된 방안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방향제시로서 하루속히 발전방향이 정립되고 낙농 유가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